“오래된 서예가의 시간 담긴 붓글씨 감상하세요”

조명숙 서예가 첫 개인전
22일부터 서울 경인미술관
4월17일 2차 전시 영암서
전서 등 7가지 서체 선봬

영암 출신의 조명숙 서예가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6전시실에서 첫 개인전을 진행한다.

평범한 주부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깊숙한 방에서 남몰래 쌓아온 한 서예가의 시간이다. 영암 출신의 조명숙 서예가가 한 획에 채움과 비어냄의 조화를 담아낸 작품을 전시한다. 만학의 나이로 서예를 시작한 지 꼬박 20년째 되는 해다.

조명숙 서예가의 첫 개인전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6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서울 개인전에 이어 2차 전시는 4월17일부터 28일까지 영암문화원에서 진행된다. 조명숙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오래된 서예가의 시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이번 개인전에서 각각 전서, 예서, 행서, 초서 등 7가지 서체로 쓰인 42개의 글귀를 감상할 수 있다. 모두 조 작가가 지난해 봄부터 1년간 준비한 작품들이다.

먼저 한자 5대 서체 중 가장 먼저 생긴 서체인 전서로 쓰인 和光同塵(화광동진)이다. 노자의 도덕경 4장에 있는 화광동진은 ‘자기의 빛을 부드럽게 해 속세의 티끌에 같이 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지혜와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인과 어울려 지내면서 참된 자아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다. 전서 서체는 공간구성이 안정적이라 조형미가 뛰어나다.

두 번째 작품은 도연명의 ‘사시(四時)’다. 도연명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가난한 농민들과 어울려 지냈던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시인이다. ‘사시’는 도연명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지은 시로 자신을 한겨울 고갯마루에 홀로 우뚝 선 사계절을 한 몸에 담은 외로운 소나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인상 깊어 만든 작품이다.

조명숙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예서체로 ‘사시’를 선보였다. 예서체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도 쉽게 익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체다. 조 작가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도연명의 측은지심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작품은 불교 경전을 뜻하는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다. 반야심경은 초서체와 행서체로 구성된 경전인데, 조 작가는 작품을 통해 부처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 특히 빠르고 활발한 필체를 특징으로 하는 초서체를 통해 서예의 정수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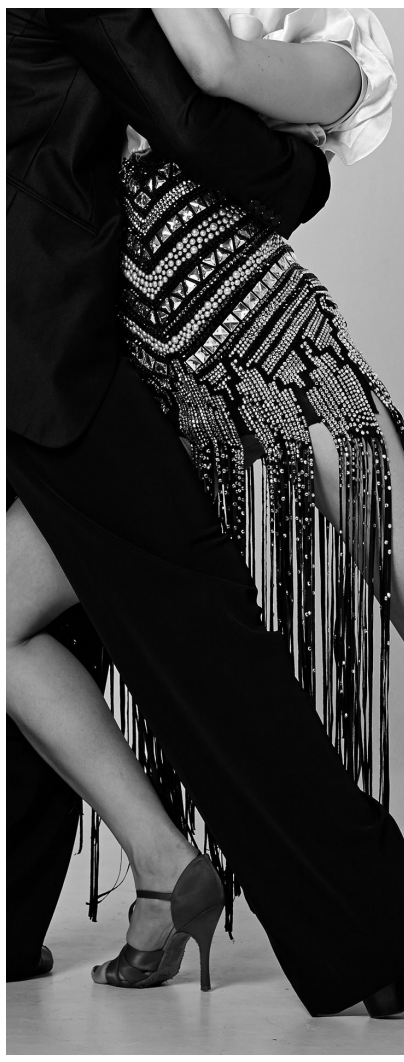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호남대 대학원 미술학을 전공한 조 작가는 원래도 서예가 전공이었다. 그마저도 결혼하면서 작품활동을 내려놨다. 아내, 엄마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공직생활을 한 남편을 조용히 내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영암에 있는 서실을 다니면서 취미로 글씨를 쓰는 것뿐이었다.

취미로 시작한 서예였지만 여러 단체전, 기획전에 초대작가로 참여하고 2009년 문체부장관상인 소치미술대전 대상까지 받으면서 점점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집에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미고 서예가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조명숙 작가는 “붓글씨는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줬다. 이번 개인전에서 한 명의 관객일지라도 나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서예는 한 획마다 강약 조절과 붓의 움직임에 따라 느낌을 달리 줄 수 있다. 획이 공간으로 들어차는 것과 여백을 활용해 조화를 이뤘을 때 어떤 미술 장르에서도 표현하기 힘든 고유한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국제서법예술연합 호남지회 한·중 교류전, 국제서법예술연합 국내 교류전, 호남대 대학원 원우회전 등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광주미술협회 회원. 국제서법예술연합 호남지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전남문화재단 라틴음악 정수 선보인다

18일 남도소리울림터서
밴드 카스타야 탱고 공연

전남문화재단이 봄맞이 특별한 공연에 도민들을 초대한다.

남도소리울림터 프로젝트 밴드 ‘카스타냐 탱고’는 오는 18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의 시간’을 공연한다.

공연은 탱고음악 거장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곡을 비롯, 관객들에게 친숙한 탱고음악에 아르헨티나 댄서들의 역동적인 춤이 한데 어우러져 라틴음악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이 이끄는 ‘카스타냐 탱고’는 반도네오니스트 임시내, 비올리스트 이신규, 아르헨티나 정통 탱고 댄서 Miguel & Pelin Calvo 등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밴드로, ‘잘 여문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처음 공연되는 장르이니만큼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성했으며, 작년에 준비했던 공연보다 더 많은 연주자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새봄을 맞아 새 희망을 느낄 수 있는 탱고 공연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신청은 남도소리울림터 누리집(http://namdosori.or.kr)을 통해 가능하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061-280-5828)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광주비엔날레 개막 D-50

국립광주박물관 등 공간별 감상
예매 입장권 최대 40% 가량 저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한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광주 전역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기간이 역대 최장인 만큼, 보다 많은 관광객이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광주의 문화예술 공간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일권 등을 개발했으며 개막 후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KTX 및 SRT 승차권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패키지도 3월부터 판매 예정이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본전시와 함께 전시 기간 국외 유수 문화예술 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광주 전역을 문화예술 현장으로 물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이번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여느 때보다 최장 기간 동안 다채로운 광주의 장소에서 전시가 펼쳐지면서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개막 전인 4월 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예매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행사기간 내 현장 판매 입장권 보다 최대 40% 가량 저렴하다.

도선인 기자

은밀한 무대 뒤 매력 만끽… ‘신비한 극장’

ACC, 체험 프로그램
24~25일 예술극장서

무대 뒤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한편의 공연이 관객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 무대기술을 체험하고 공연도 즐기며 무대 뒤 숨은 비밀을 알아보는 특별한 여행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무대기술 체험 ‘신비한 극장’을 오는 24~25일 이틀 동안 총 4회 예술극장 극장1에서 운영한다. 관객이 공연장 각 시설물과 무대 운영 시스템, 공연 관계자 역할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신비한 극장’은 관객이 국내 최대 블랙박스 극장인 ACC 예술극장 극장1의 무대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공연도 감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관객을 무대 너머 다른 세상으로 이끈다.

오후 2시 공연에 편성된 무대기술시연 프로그램에선 매체예술(미디어아트)과 함께 해금, 플룻, 타악기 합주와 조명에 안무가의 군무를 조합한 기술 공연 ‘배튼(조명이나 무대장치를 연결하는 봉)쇼’를 선보인다.

이어 관객이 평소 접하기 힘든 음향, 조명, 무대 등의 기술을 ACC 극장 감독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저녁 7시30분 프로그램에선 대중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인디밴드 아도이(ADOY)의 공연을 즐기며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환상적인 공연을 경험 할 수 있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무료다. 관람연령은 8세 이상이다. 입장권은 1차 14일, 2차 21일에 각각 예매할 수 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도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https://www.ac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열린 극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당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호흡과 공동 작업으로 이번 무대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전당의 공연 시설 곳곳의 매력과 감각적인 콘텐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현장의 눈빛…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21일 광주 신세계갤러리서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광주·전남 지역 사건사고 등의 현장을 기록한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2023 현장의 눈빛 광주·전남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를 통해 광주·전남사진기자회에 속한 광주지역 일간지, 통신사 사진기자들이 취재한 사진 8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누리호 2차 발사, 코로나19 실외마스크 해제, 50년만의 가뭄, 광주·전남지역의 계절 변화 등을 담아낸 보도사진이다. 2차 전시는 3월17일부터 3월24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진행된다. 전시된 사진은 광주·전남사진기자회 홈페이지(https://sajingija.co.kr)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1월에 열린 광주 삼각초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비대면 졸업식을 갖고 있다. 해당 사진은 ‘2023 현장의 눈빛 광주·전남 보도사진전’에 전시된다. **나건호 기자**

광주·전남사진기자회의 보도사진 상인 제18회 ‘박경완 기자상’에는 연합뉴스 천정인 기자의 ‘이태원 참사, 다시 밝혀진 촛불’이 선정됐다. ‘박경완 기자상’은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 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고자 제정했다. **도선인 기자**